

“제한부터 장려까지”...광양시 인구정책 변화 한눈에

60년간 표어 변천사 전시회

오늘부터 시청 로비서 관람

시대별 포스터·공익광고 선배

광양시가 제1회 광양시민의 날을 맞아 시대별 인구정책의 흐름을 돌아보는 ‘인구정책 표어 변천사 전시회’를 개최한다.

19일 광양시에 따르면 산아제한에서 출생장려로 이어진 60여년의 인구정책 변화를 표어를 통해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시다.

이번 전시는 지자체에서는 보기 드문 ‘표어 중심 기획전’으로, 1차 전시는 지난 14일 광양커뮤니티센터에서 열렸다. 2차 전시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광양시청 로비에서 열린다.

전시에는 1980년대 산아제한 정책부터 최근 출산장려 공모전 수상작까지 각 시대의 포스터, 표어, 공익광고 영상이 함께 선보인다.

1950년대 6·25 전쟁 이후 인구 부족을 이유로 “3남2녀로 5명은 낳아야조”와 같은 다자녀 출산장려 표어가 등장했으나 10년 후에는 “덜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변한다”,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등 인구 증가 억제 정책



출생보건과 설명을 듣고 있는 정인화 광양시장.

〈광양시제공〉

이 확산됐다.

1970-80년대에는 “하나 낳아 알뜰살뜰”, “둘도 많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등 한 자녀 기조가 강화됐으며 당시 표어들은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 들어서는 “아들바람 부모세대, 짝궁 없는 우리세대”와 같은 성평등 인식이 담긴 표어가 등장했지만 출산을 저하로 노동력 감소 문제가 대두되면서 1998년 인구억제정책이 폐기됐다.

이후 “하나는 외롭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동생입니다” 등 출산장려 표어가 정책 기조를 대체했다.

광양시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올해 상반기 시민을 대상으로 인구정책 표어 공모전을 열고 “기쁨은 출산에서, 행복은 육아에서, 해답은 광

양에서” (최우수상), “결혼으로 행복예약, 출산으로 미래예약” (우수상) 등 수상작을 선정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시민이 직접 만든 표어에는 출산이 부담이 아닌 기쁨이라는 인식 전환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광양시는 표어 전시와 함께 결혼·출산·육아 지원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200만원),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청년 주거비 지원 등으로 혼인 건수가 전년 대비 8.7% 증가했다.

또 출생기본수당(월 20만원), 출생축하금(최대 2천만원), 산후조리비, 난임부부 지원 등을 통해 출산율 1.09명을 기록하며 전국 평균(0.75명)을 웃돌았다.

육아 분야에서는 24시간 돌봄어린이집,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한부모가족 양육비, 아동 의료비 지원 등 제각각 지원정책을 운영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힘쓰고 있다.

황영숙 광양시 출생보건과장은 “이번 전시는 인구정책이 단순한 출산장려를 넘어 시민의 공감과 성찰의 장이 됐다”며 “4년 연속 인구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여수세계섬박람회 협력 지원 협의회’ 출범

유관기관·기업 등 19명 참여

분야별 협력체계 본격 가동

여수시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 지원 협의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19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협력 지원 협의회 출범회’를 열고 향후 운영 방향과 기관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이번 협의회는 유관기관장, 기업인, 종교계 대표 등 19명으로 구성됐으며, 약 14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정기명 시장을 비롯해 협의회 위원, 섬박람회지원단,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 취지 및 방향 ▲섬박람회 추진 현황 ▲기관별 협력 요청 사항 등을 공유했다.

배기봉 섬박람회지원과장이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조형근 조직위원회 기획본부장이 박람회 추진 현황 및 주요 과제를 보고하며 행사 이



해도를 높였다. 이어 각 기관의 협력 요청 사항 발표와 의견 수렴이 이어졌다.

참석 위원들은 “섬박람회의 추진 상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각 기관이 적극 협력해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협의회는 앞으로 2개월 단위로 정기회의를 열어 ▲기관·단체 네트워크를 통한 홍보 및 참여 확대 ▲국내·외 관람객 및 기업 유치 ▲행사 운영 분야별 협력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

이다.

논의된 안건은 각 기관·단체의 실무진 회의로 이어져 세부 실행계획 수립과 이행상황 점검으로 구체화된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협의회를 조금 더 일찍 운영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각 기관의 협조가 더해진다면 반드시 성공적인 박람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속도감 있게 준비될 수 있도록 전 부서와 기관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담양군, 지자체 합동평가 추진상황 보고회

3년 연속 우수기관 목표

담양군은 “최근 2023년(2025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 본격 대응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이정국 부군수 주재로 ‘합동평가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한 가운데 각 부서별 추진 현황과 지표별 실적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담양군은 올해 초부터 부군수 주재 보고회를 시작으로 월별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해왔으며 부진 지표에 대해서는 대책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전 부서가 협력해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80개 정량지표 전반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부서별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또한 가중지표 및 목표 초과 달성에 따른 가점 확보 방안을 공유하고,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우선구매 ▲시범구매 ▲상생협력제품 구매 등 부서 간 협력이 필요한 지표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정국 부군수는 “합동평가뿐 아니라 각종 정부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실적 향상에 기여한 직원들이 승진이나 포상 등 인사 제도에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순천농협 낙안지점 농기계수리센터 신축

시 지원...영농자재·수리 기능 거점 역할

순천시는 19일 “지난 16일 시의 지원으로 건립된 순천농협 낙안지점 농기계수리센터 및 경제사업부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강형구 순천시시장, 최만휴 순천농협조합장, 지역 농업인과 농업 관계자, 기관·단체장 등 150여명이 참석해 신축을 축하했다.

이번에 준공된 낙안지점 경제사업부는 영농자재센터와 농기계수리센터를 함께 갖춘 복합 시설로, 지역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농기계수리센터는 순천시가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신축한 시설로, 농업인들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영농 편의성 향상과 경영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농작업 효율성 제고와 안정적인 영농 기반 마련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낙안지점 경제사업부와 농기계수리센터 준공은 시와 농업이 협력해 완성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농업인과 순천농협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정기 기자

화순군, 전국 최초 춘란 중국 수출 쾌거

화순군은 19일 “전국 최초로 한국춘란(春蘭)의 중국 수출에 성공하며 국내 화훼 산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은 화순난농협화사법인을 중심으로 화순군청, 전남도, 농림축산검역본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관계 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뤄졌다.

1차 수출 물량은 춘란 500척으로, 오는 10월 말 중국 복건성 장주시 남정현 지역의 현지 유통업체로 선적될 예정이다.

단순한 품종 판매를 넘어 한·중 간 화훼 교류 확대와 한국 전통 난문화의 세계화를 이끌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화순군은 향후 2·3차 수출을 통해 총 1억 원 규모의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수출은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함께 국내 난 산업의 수출 기반 확충에도 의미가 크다.

화순군은 예로부터 ‘춘란의 고장’으로 불리며 전국 최고 품질의 난을 생산해왔다. 2023년부터는 난 산업을 본격 추진하며 화훼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이번 수출은 화순 춘란의 세계 시장 진출 신호탄이자 품질 경쟁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라며 “앞으로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시장으로 판로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화순=이병철 기자

구례군 ‘자살예방·정신건강의 날’ 기념 공연 성료

인식개선·생명존중 문화 확산

구례군은 “최근 세계자살예방의 날(9월10일)과 정신건강의 날(10월10일)을 기념해 마련한 ‘마음ON(溫)’ 문화공연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9월23일과 10월16일 두 차례에 걸쳐 구례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목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

행됐다.

행사에서는 ▲정신건강 인식개선 교육 ▲간식 부스 운영 ▲군민 참여형 퍼포먼스 및 구호 제창 ▲‘정신건강’을 주제로 한 샌드아트 공연 ▲‘생명존중’을 주제로 한 패러디 공연 등이 펼쳐져 관람객들에게 따뜻한 감동과 공감의 메시지를 전했다.

공연에 참여한 한 주민은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받은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구례=임종길 기자



장성군 ‘심폐소생술 체험관’ 개소

매주 월·수·금 사전예약 운영

장성군은 “최근 장성군보건소 앞에서 ‘심폐소생술 체험관’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개관식에는 김한중 장성군수와 심민섭 장성군의회 의장, 군의원, 유관기관장 등 10여명이 참석해 체험관 개관을 축하했다. <사진>

‘심폐소생술 체험관’은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능력을 길러 주는 교육 공간이다. 성인·영아용 심폐소생술(CPR) 실습 매네킹, 교육용

자동심장충격기(AED) 등을 갖추고 있다.

교육은 매주 월·수·금요일에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장성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예약 전화는 장성군보건소 의약관리팀(061-330-7103)으로 하면 된다.

개관식에선 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진행해 이목을 끌었다.

김한중 군수는 “군민 누구나 위급한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 지원을 꾸준히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